Check for updat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4 No.3 Serial No.183 2026.9. 51~64
ISSN(print) 2765-1932
https://doi.org/10.7466/JFBL.2026.44.3.51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타당화

Validation of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for Adolescents

배예랑[1](Ye Rang Bae) https://orcid.org/0000-0003-0286-2109

[1]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타당화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Van Den Eijnden, Lemmens와 Valkenburg(2016)의 The Social Media Disorder(SMD) 척도의 문항을 번안 및 최종 구성하여 국내 청소년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MD 원척도는 9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항 양호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8요인 25문항의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및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와 SNS 사용 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성이 높은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실천적 함의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신뢰도, 타당도

I. 서론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인맥 관리, 정보 탐색 및 공유 등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Boyd, Ellison, 2007). 얼마 전까지 코로나 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인해 활발한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방식의 학교 수업 및 활동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SNS의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윤화, 2024).

현대 사회에서 SNS는 소통과 정보 획득을 위한 필수적 도구이다. SNS를 통해 여러 정보와 컨텐츠를 얻을 수 있고, 개인적 관심사를 공유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SNS가 보편화되어 사용률 및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SNS 중독 심각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이란 '온라인상의 대인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내성 및 금단 증상에 의해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Kuss & Griffiths, 2017). SNS 중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부터 이루어져, '중독'이라는 단정적 용어보다 '중독 경향성' 또는 '문제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추세이다(오윤경, 2012). 현재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12개국 이상의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성욱제, 정은진, 2025). 틱톡 또한 14-17세 청소년의 실시간 방송을 금지하고, 일일 시청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제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나가는 과도기로, 관계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이동하면서 대인관계 및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SNS 중독에

* Corresponding Author: Bae Ye Rang,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Rep. of Korea. E-mail: fjqmrkt@cau.ac.kr
[Received] June 17, 2026; [Revised] August 12, 2026; [Accepted] September 17, 2026

더 쉽게 노출된다(Gladwin, Figner, Crone, & Wiers, 2011).

과도한 SNS 사용은 실제 세계에서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감을 하락시키고, 주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하락시킨다(Blachnio, Przepiorka &, Pantic, 2016). 청소년의 SNS 중독은 실제 현실에서의 대면을 통한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를 낮추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성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Kross et al., 2013; Hawi & Samaha, 2016).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SNS의 과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중독 문제 및 가족과의 대화와 소통 감소, 주변 대인 관계와의 단절 등의 문제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유승희, 2024). 청소년의 SNS 중독은 실제 현실에서의 주변 인물과 소통할 수 있는 빈도를 감소시키고, 높은 소외감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대인관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신민주, 2017). 또한, 현실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SNS를 과다하게 사용할수록 SNS에 과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SNS 중독 수준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고은혜, 배상률, 2016).

청소년의 SNS 중독은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 감소 및 학업 집중의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옥, 양혜정, 2020).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부적응 수준과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한 높은 심각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SNS 중독 측정 도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써, 또래 관계를 활발하게 맺고자 하는 욕구 특성을 갖는다(Elkind, 1981). 청소년만의 발달 특성과 SNS 사용 동기 및 관계 욕구를 형성함으로써(김성희, 임영진, 2019; 손선경, 2015), SNS 사용 환경과 중독 관련 기제에 있어 성인과 다른 SNS 사용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표적인 SNS 중독 척도들을 살펴보면, 오윤경(2012)이 개발한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도구가 있다. 오윤경(2012)의 척도는 Young(1998)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를 성인 300명의 연구 대상으로 측정하여 개발된 척도로써, 내성과몰입, 금단,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기대, 일상생활 장애, 중독에대한자기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정 요인은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나타나는 중독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과 함께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있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 사회적 소속과 인정에 대한 욕구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척도인 서경현, 조성현(2013)이 개발한 척도 역시 대학생 302명과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각각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조사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SNS 사용 경험과 중독적 사용 특성이 문항 개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 과도한 시간투자 등의 구성 요인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사용 시간 및 사용량의 증가로 설명하기보다 또래 관계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발달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의 SNS 사용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소영, 김종남(2014)의 척도 역시 Andreassen 외(2012)가 대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Bergen Facebook Addiction

표 1. 기존 SNS 중독 경향성 척도

척도명	연구 대상	문항수	하위요인	분석 방법
오윤경(2012) SNS 중독경향성 척도	성인 300명	11	내성과몰입, 금단,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기대, 일상생활 장애, 중독에대한자기인식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K척도 수정, 공인타당도 분석, t검증
이상호(2013) 한국형 SNS 중독지수		10	시간적 내성, 중단시도 실패, 금단 불안, 생활 장애	인터넷, 스마트폰, 페이스북 중독 척도 수정,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서경현, 조성현(2013)	대학생 302명, 성인 20명	20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 과도한 시간투자	표적집단면접, 탐색적 요인분석
정소영, 김종남(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대학생 331명	24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 문항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공인타당도 분석
신성만 외(2016) 한국판 대학생용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	대학생 656명	18	내성, 재발, 금단, 현저성, 기분조절, 갈등	Bergan 페이스북 중독 척도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Scale(BFAS)을 대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나,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와는 다른 발달 특성을 가지고, SNS 사용 동기에 있어 질적으로 다른 특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은혜, 배상률, 2016; 김성희, 임영진, 2019; Elkind, 1981). 따라서 성인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개발된 기존 척도의 구성 요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청소년기의 SNS 사용 환경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문제적 사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성 검증 및 적용이 필요하다. 그 밖에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SNS 중독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결과를 밝혔다(신민주, 2017; 임정아, 2014; 하문선, 2020; Gladwin, et al., 2011). 청소년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발달시키고,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형성한다(손선경, 2015). 그러나, 현실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SNS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SNS 중독이 더욱 쉽게 나타났다(신민주, 2017). 청소년의 미성숙한 발달 특성은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SNS 과다 사용 및 중독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아, 2014). 또한, 청소년은 SNS 댓글과 타인의 피드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획적 및 이성적 사고, 감정조절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성인보다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특성을 보였다(하문선, 2020).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된 변인으로 SNS 사용 동기, 내현적 자기애 및 외로움을 선정하였다. SNS 사용 동기는 SNS를 이용 행동을 촉진하는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로써, 의존적이고, 과도한 SNS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김성희, 임영진, 2019). 또한, 내현적 자기애자는 취약한 자아개념으로 인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실보다 통제가 쉽고, 이상적 모습을 더욱 과시할 수 있는 SNS 환경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경현, 조성현, 2013; 신민주, 2017).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욕구와 실제 관계 간의 불일치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외로움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SNS에 의존하고, SNS 중독과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었다(오윤경, 2011; 정소영, 김종남,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된 SNS 사용 동기,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과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정리해보면, 청소년은 SNS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과도하게 몰두함으로써, 성인보다 SNS 중독에 더욱 취약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측정 도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SNS 소통 특성과 사용 목적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임으로써(김성희, 임영진, 2019; Gladwin, et al., 2011),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들은 청소년만의 발달 특성 및 SNS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정확히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상호작용 및 발달 특성을 반영한 SNS 중독 경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 기관에 의뢰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500부 중에서 연구 대상의 연령 및 학교급 기준 등 조사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설문 응답이 누락된 자료 등 분석에 부적합한 21부를 제외하여 총 479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급별 분포는 고등학생 76.0%, 중학생 24.0%로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여학생 60.1%, 남학생 39.9%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3.8%, 경상도 14.4%, 충정도 8.1%, 인천광역시 7.7%, 전라도, 5.6%, 강원도 1.9%, 제주도 0.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관계는 장남(녀)가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막내 24.8%, 중간 20.3%, 외동 9.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은 70-85점이 56.8%로 가장 많았고, 86점 이상 21.9%, 70점 미만이 21.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The Social Media Disorder Scale (SMD)

청소년의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Van Den Eijnden, Lemmens와 Valkenburg(2016)가 개발한 The Social Media Disorder(SMD)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연구 대상은 10-17세 연령의 총 2198명의 네덜란드 청소년들로,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검증하고, 반복 측정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문항은 총 27개로, 하위 요인은 '집착'(Preoccupation), '내성'(Tolerance), '금단'(Withdrawal), '지속성'(Persistence), '도피'(Escape), '문제 유발'(Problems), '기만'(Deception), '흥미 이동'(Displacement), '관계 갈등'(Conflict)으로 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Van Den Eijnden 외(2016)의 연구에서 SMD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 조사에서 .90, 3차 조사에서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MD 척도를 국내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위해 연구자가 번안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SMD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 SNS 사용 동기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김성희, 임영진(2019)이 개발한 청소년용 SNS 사용 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24개 문항으로, 하위 요인은 '정보 동기', '고양 동기', '사교 동기', '대처 동기', '소일 동기', '동조 동기' 6가지로, 각 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사용 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정보 동기' .81, '고양 동기' .79, '사교 동기' .81, '대처 동기' .86, '소일 동기' .85, '동조 동기' .88로 나타났다.

3) 내현적 자기애

SNS 중독 경향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박세란(2004)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를 요인 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만 해당하는 고유요인을 분류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3가지로, 목표불안정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목표불안정' .83, '과민/취약성' .91, '소심/자신감부족' .80으로 나타났다.

4) 외로움

SNS 중독 경향성과 외로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Rusell, Peplau, Ferguson(1978)이 개발한 UCLA Loneliness 척도를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20개로,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대인 관계 만족' 10문항, '대인 관계 불만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대인 관계 만족' .93, '대인 관계 불만족' .88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1) 문항 번안 및 구성

본 연구를 위해 SMD 척도의 원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내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척도 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척도 번안을 위해 교육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직장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영-한 번역 경험이 있는 1인과 함께 원척도의 전체 문항을 일차적으로 번역하였다. 번역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서와 표현에 맞지 않는 부분과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다수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20번 문항 'SNS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

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에서 'SNS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만 떠오른 적이 있다.'로 수정하고, 10번 문항 'SNS에서 무엇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에서 'SNS에서 새로운 이슈를 보기 위해 앉아서 기다린 경험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후, 1차 번역본을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 1인이 2차적으로 역번역하여 검토하였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1번 문항 '다른 일(예: 학교 과제)을 할 때 SNS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를 '다른 일(예: 학교 과제)을 할 때 SNS 메시지를 보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석사 학위 소지자 1인이 원척도의 문항과 2차 역 번역안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문항은 <표 2>와 같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에 신뢰도 및 타당도를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요인 구조가 확립된 원척도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χ^2 검증과 TLI, CFI, RMSEA의 지수를 살펴보았다. 셋째, 내적합치도 값

표 2.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문항 구성

문항 구성
1. 다른 일(예: 학교 과제)을 할 때 SNS 메시지를 보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
2. SNS를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3. 고민을 잊기 위해 SNS를 한 적이 있다.
4. SNS로 인해 학교에서나 숙제를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5. SNS 메시지를 더 자주 확인한다고 느낀다.
6. SNS로 인해 취미 활동과 같은 다른 활동에 관심이 줄었다.
7. SNS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
8. SNS 사용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숨긴 경험이 있다.
9. SNS 사용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다.
10. SNS에서 새로운 이슈를 보기 위해 앉아서 기다린 경험이 있다.
11. SNS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느낀다.
12. 늦은 밤까지 SNS를 하느라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적이 있다.
13. 주변 사람이 SNS 사용을 줄이라고 말했지만 중단할 수 없었다.
14.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SNS를 사용한 적이 있다.
15. 과도한 SNS 사용으로 학교나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다.
16. SNS 사용 시간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다.
17.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18. SNS 사용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적이 있다.
19. SNS를 더 오래 하고 싶어서 불만을 느낀 적이 있다.
20. SNS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만 떠오른 적이 있다.
21. SNS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22. SNS를 몰래 사용한 적이 있다.
23.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
24. SNS 사용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
25. SNS 사용으로 우정이나 대인 관계가 위태롭거나 잃은 경험이 있다.
26. 안 좋은 일을 잊기 위해 SNS를 한 적이 있다.
27. SNS를 하고 싶어서 (취미, 스포츠와 같은) 다른 활동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 요인 부하량 및 C.R 값, 평균 분산추출(AVE), 개념 신뢰도 값을 산출하여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공인 타당도 및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타 측정 도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문항 양호도 검증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및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은 2.17~3.02의 값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 값은 .92~1.01의 범위를 나타내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제거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내적 합치도는 .964로 나타났고, 모든 문항의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는 .962~.963 값으로 나타나, 전체 내적 합치도보다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든 문항의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은 .61~.79 값으로 나타났고, 적합한 기준인 .40 이상으로 나타나, 낮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10보다 작을 경우,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Kline, 2015),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기준에 적합하여 정규분포를 위한 가정을 충족시켰다.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문항 양호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2.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 구조를 새롭게 탐색하기보다 기존에 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반복적으로 검증된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

표 3.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문항 양호도 검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1	2.81	.96	-49	-.68	.64	.963
2	2.81	.96	-.35	-.85	.68	.963
3	3.02	.99	-.68	-.61	.61	.963
4	2.83	1.01	-.50	-.82	.72	.962
5	3.00	.95	-.60	-.62	.66	.963
6	2.73	1.05	-.27	-1.13	.68	.963
7	2.58	1.06	-.19	-1.18	.74	.962
8	2.68	1.13	-.23	-1.35	.73	.962
9	2.76	1.08	-.30	-1.21	.68	.963
10	2.58	1.06	-.20	-1.18	.69	.962
11	2.96	.92	-.61	-.44	.65	.963
12	2.92	1.05	-.56	-.92	.68	.963
13	2.50	1.07	-.08	-1.23	.78	.962
14	2.91	.99	-.59	-.67	.66	.963
15	2.57	1.09	-.06	-1.29	.79	.962
16	2.56	1.10	-.12	-1.30	.76	.962
17	2.37	1.09	-.16	-1.28	.79	.962
18	2.48	1.02	-.08	-1.13	.79	.962
19	2.62	1.09	-.16	-1.28	.79	.962
20	2.59	1.04	-.19	-1.12	.77	.962
21	2.73	1.06	-.37	-1.06	.79	.962
22	2.69	1.05	-.32	-1.09	.76	.962
23	2.54	1.01	-.14	-1.08	.77	.962
24	2.47	1.07	-.07	-1.25	.74	.962
25	2.17	1.09	.40	-1.17	.70	.962
26	2.70	1.04	-.28	-1.09	.66	.963
27	2.50	1.03	-.01	-1.13	.67	.963

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특성으로 인해 χ^2 검증 방법만으로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Browne & Cudeck, 1993), 표본 수에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인 표준화된 χ^2, 즉 CMIN/DF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원척도의 요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915.16(*df*=288), CMIN/DF=3.18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흥미 이동'과 '관계 갈등' 요인 간의 상관 계수가 .80 이상 높게 나타났고, '흥미 이동' 요인에 속한 6, 18, 27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나, 적합하지 않았다. 이론적 검토 결과, 18번 문항인 'SNS 사용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적이 있다'는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흥미 이동'보다, SNS 사용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수정지수(MI)를 검토한 결과, 18번 문항과 '관계 갈등' 요인 간 수정지수가 14.482로 나타나, 관계 갈등 요인과 관련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흥미 이동' 요인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6, 27번 문항을 제외하고, 18번 문항을 '관계 갈등' 요인으로 재배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710.62(*df*=247, *p*<.001), CMIN/DF=2.88 값을 나타냈고, TLI=.93, CFI=.94, RMSEA=.06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다. 8개 요인의 문항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고(*p*<.001), 8개 요인의 표준화 요인 계수 값은 .79~1.45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간의 상관 계수 또한 .33~.73으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냈다.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적합도 지수 결과는 <표 4>와 같고,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요인은 총 8개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1인 '집착'은 'SNS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SNS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SNS에 집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인 2인 '내성'은 'SNS 피드 및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거나 확인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인 3인 '금단'은 'SNS를 사용하지 못할 때, 부정적 감정 및 기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SNS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요인 4인 '지속성'은 'SNS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중단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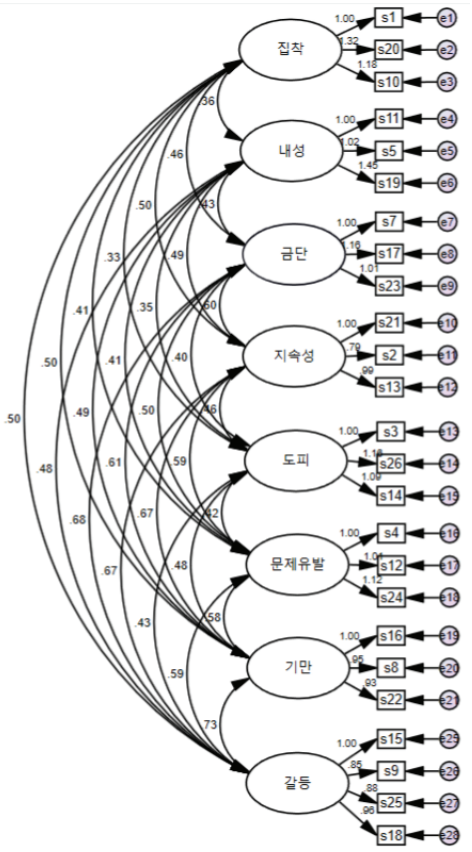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척도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이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요인 5인 '도피'는 '현실에서의 부정적 사건이나 감정을 SNS를 통해 해소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도피처로써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요인 6인 '문제유발'은 '지나친 SNS 사용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요인 7인 '기만'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SNS 사용량에 대해 거짓으로 숨기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한다. 요인 8인 '관계갈등'은 'SNS 과사용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가정 및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3. 신뢰도 검증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에

표 4.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모형 적합도

χ^2	*df*	CMIN/DF	TLI	CFI	RMSEA
710.62	247	2.88	.93	.94	.06

표 6.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판별 타당도

	집착	내성	금단	지속성	도피	문제유발	기만	관계갈등
집착	**.69**							
내성	.36	**.70**						
금단	.46	.43	**.78**					
지속성	.50	.49	.60	**.74**				
도피	.33	.35	.40	.46	**.72**			
문제유발	.41	.41	.50	.59	.42	**.70**		
기만	.50	.49	.61	.67	.48	.58	**.75**	
관계갈등	.50	.48	.68	.67	.43	.59	.73	**.74**

대한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집착' .73, '내성' .74, '금단' .75, '지속성' .78, '도피' .72, '문제유발' .75, '기만' .76, '관계 갈등' .81로 적합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타당도 검증

1)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과 C.R(critical ratio) 값을 산출하고, 평균분산추출(AVE) 및 개념 신뢰도

표 5.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집착	문항1	1.00	-	-	.62***	.45	.71
	문항20	1.32	.09	14.14	.76***		
	문항10	1.18	.09	12.75	.66***		
내성	문항11	1.00	-	-	.64***	.49	.74
	문항5	1.02	.08	12.54	.63***		
	문항19	1.45	.10	14.88	.78***		
금단	문항7	1.00	-	-	.75***	.61	.83
	문항17	1.16	.06	19.22	.85***		
	문항23	1.01	.06	17.78	.79***		
지속성	문항21	1.00	-	-	.79***	.55	.79
	문항2	.79	.05	15.92	.68***		
	문항13	.99	.05	18.77	.78***		
도피	문항3	1.00	-	-	.68***	.52	.77
	문항26	1.16	.08	13.95	.75***		
	문항14	1.09	.08	13.89	.74***		
문제 유발	문항4	1.00	-	-	.69***	.46	.72
	문항12	1.01	.07	14.19	.67***		
	문항24	1.12	.07	15.42	.73***		
기만	문항16	1.00	-	-	.80***	.56	.79
	문항8	.95	.05	17.70	.74***		
	문항22	.93	.05	18.71	.78***		
관계 갈등	문항15	1.00	-	-	.81***	.54	.83
	문항9	.85	.05	16.55	.69***		
	문항25	.88	.05	17.27	.71***		
	문항18	.96	.05	20.91	.82***		

*** $p<.001$

(construct reliability) 값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고(p<.001), C.R.값이 1.965보다 높아 수렴 타당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각 하위 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을 산출한 결과, '집착', '내성', '문제 유발' 요인은 .5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요인은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도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일부 요인에서 평균분산추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개념 신뢰도 값으로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Malhotra, Dash, 2011), 개념 신뢰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2)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은 해당 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 상관 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판별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3) 공인 타당도 및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SNS 사용 동기 척도(김성희, 임영진, 2019)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r=.60, p<.01), 모든 하위 요인의 상관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SNS 중독 경향성 척도는 기존의 유사한 검사 도구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 중독 경향성과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 변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결과를 나타낸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서경현, 조성현, 2013; 오윤경, 2011; 정소영, 김종남, 2014; Van Den Eijnden 외, 2016)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SNS 중독 경향성과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63, p<.01), 모든

표 7. SNS 중독 경향성, SNS 사용 동기 상관관계

	1	2
1. SNS 중독 경향성	1	
2. SNS 사용 동기	.61**	1

**p<.01

표 8. SNS 중독 경향성, SNS 사용 동기 하위요인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5**	1												
3	.76**	.72**	1											
4	.78**	.77**	.74**	1										
5	.62**	.67**	.61**	.65**	1									
6	.74**	.74**	.70**	.79**	.68**	1								
7	.73**	.73**	.73**	.74**	.65**	.73**	1							
8	.76**	.72**	.82**	.75**	.59**	.76**	.79**	1						
9	.30**	.32**	.22**	.30**	.36**	.29**	.24**	.21**	1					
10	.43**	.53**	.37**	.44**	.49**	.44**	.40**	.35**	.59**	1				
11	.41**	.47**	.40**	.38**	.42**	.40**	.35**	.39**	.47**	.62**	1			
12	.56**	.59**	.49**	.49**	.66**	.52**	.50**	.48**	.48**	.65**	.63**	1		
13	.42**	.51**	.32**	.46**	.53**	.43**	.37**	.30**	.62**	.72**	.48**	.62**	1	
14	.52**	.42**	.50**	.41**	.42**	.42**	.40**	.50**	.33**	.44**	.64**	.59**	.31**	1

**p<.01

1=집착, 2=내성, 3=금단, 4=지속성, 5=도피, 6=문제유발, 7=기만, 8=관계갈등, 9=정보동기, 10=고양동기, 11=사교동기, 12=대처동기, 13=소일동기, 14=동조동기

표 9. SNS 중독 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 상관관계

	1	2	3
1. SNS 중독 경향성	1		
2. 내현적 자기애	.61**	1	
3. 외로움	.31**	.59**	1

**p<.01

표 10. SNS 중독 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75**	1									
3	.76**	.72**	1								
4	.78**	.77**	.74**	1							
5	.62**	.67**	.61**	.65**	1						
6	.74**	.74**	.70**	.79**	.68**	1					
7	.73**	.73**	.73**	.74**	.65**	.73**	1				
8	.76**	.72**	.82**	.75**	.59**	.76**	.79**	1			
9	.47**	.40**	.41**	.45**	.45**	.41**	.40**	.41**	1		
10	.59**	.54**	.56**	.57**	.59**	.60**	.57**	.59**	.75**	1	
11	.48**	.38**	.40**	.45**	.45**	.44**	.41**	.43**	.72**	.79**	1

**p<.01
1=집착, 2=내성, 3=금단, 4=지속성, 5=도피, 6=문제유발, 7=기만, 8=관계갈등, 9=목표불안정, 10=과민취약성, 11=소심자신감부족

표 11. SNS 중독 경향성, 외로움 하위요인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									
2	.75**	1								
3	.76**	.72**	1							
4	.78**	.77**	.74**	1						
5	.62**	.67**	.61**	.65**	1					
6	.74**	.74**	.70**	.79**	.68**	1				
7	.73**	.73**	.73**	.74**	.65**	.73**	1			
8	.76**	.72**	.82**	.75**	.59**	.76**	.79**	1		
9	-.16**	-.14**	-.13**	-.14**	-.17**	-.15**	-.14**	-.10*	1	
10	.49**	.38**	.48**	.43**	.39**	.43**	.41**	.51**	.06**	1

*p<.05, **p<.01
1=집착, 2=내성, 3=금단, 4=지속성, 5=도피, 6=문제유발, 7=기만, 8=관계갈등, 9=대인관계불만족, 10=대인관계만족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과 외로움 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r=.32, p<.01), 하위 요인인 대인 관계 만족과의 상관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대인 관계 불만족과의 상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공인 타당도 및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Ⅳ. 결론 및 논의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척도는 청소년의 고유한 발달 특성 및 SNS 사용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an Den Eijnden 외(2016)의 SMD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및 수정하여 국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479명(중학생 24.0%, 고등학생 76.0%)을 대상으로 문항 양호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립하였고, 요인 부하량 및 평균분산추출, 개념 신뢰도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렴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측정 도구 및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요인 구조를 새롭게 탐색하기보다 기존에 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반복적으로 검증된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척도에서 이루어진 9개의 하위 요인과 다르게 총 8개로 구성되었고, 27문항에서 2문항이 제외되고, 1문항이 재배치되었으나, 각 요인에 할당된 25문항들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외된 '흥미 이동' 요인은 'SNS 과몰입으로 인해 일상의 취미 및 스포츠와 같은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와 비중이 SNS로 이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흥미 요인'에 속했던 제외된 문항은 6번 문항 'SNS로 인해 취미 활동과 같은 다른 활동에 관심이 줄었다.', 27번 문항 'SNS를 하고 싶어서 (취미, 스포츠와 같은) 다른 활동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가 개발된 문화적 환경과 국내 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 환경의 차이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체육 및 음악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과 학교 및 지역 사회를 연계한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김철수,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시간이 길고, 운동 및 취미 등의 여가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람, 김매이, 2020; 장근영, 김기헌,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 시간과 여가 활동의 참여 수준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량과 운동 및 취미 활동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SNS 사용 환경을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척도에서 '흥미 이동' 요인에 포함되었던 18번 문항 'SNS 사용으로 주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적이 있다'는 본 연구에서 '관계 갈등'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SNS의 과사용으로 인한 다른 활동의 감소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은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발달적 시기로, SNS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성 및 양상을 보인다(김성희, 임영진, 2019; 손선경, 2015; 신민주, 2017; Elkind, 1981; Gladwin, et al., 2011). 따라서, 대인 관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청소년은 SNS 과몰입으로 인한 취미나 활동의 감소 보다 주변 관계에 소홀해지는 것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관계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 또한 적합하게 나타나,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는 일관성 있게 측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입증되었다.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 값을 충족시켰고, C.R.값이 1.965보다 높게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3개 요인을 제외한 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요인의 개념 신뢰도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 신뢰도 값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또한,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의 하위 요인 간 판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 간의 상관 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각 요인은 서로 다른 심리적 및 행동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와 SNS 사용 동기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성인 높은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상관 및 모든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는 SNS 중독 경향성과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의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서경현, 조성현, 2013; 오윤경, 2011; 정소영, 김종남, 2014; Van Den Eijnden 외, 2016).

본 연구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상담 및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SNS 사용 문제에 관한 관계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계 갈등을 포함한 여러 하위 요인은 청소년의 SNS 과사용을 이해하기 위해 대인 관계적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의 SNS 사용 문제를 자기조절 문제에만 국한하여 이해하기보다 가족과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청소년의 SNS 사용

환경에 있어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이 일상화되고, 사용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SNS 이용 빈도와 시간만으로 SNS 의존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이 동일하게 높더라도 어떠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지 각 하위요인의 상대적인 수준을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자료의 수집 방법은 무작위 표집 방식에 의해 추출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 특성에 따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종류나 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를 초기와 중기로 보다 세분화하여 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임상군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을 보다 심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번안된 척도의 내용적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CVI)과 인지 면접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 적절성을 검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 면접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적합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 등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가하여 환경 변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척도는 원척도의 일부 문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모형 적합도 및 내적 합치도의 결과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척도의 SNS 중독 경향성을 구성하는 문항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고,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척도는 원척도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면서, 국내 청소년의 문화적 및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수정된 요인 구조를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대 청소년의 SNS 중독이 꾸준히 증가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측정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만의 심리적 발달 특성과 SNS 상호작용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검증하고, 타당화함으로써, 향후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된 변인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4*(4), 969-990.

고은혜, 배상률(2016).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6), 451-472.

김성희, 임영진(2019). 청소년용 SNS 사용동기 척도의 개발. *청소년학연구, 26*(5), 137-158. https://doi.org/10.21509/KJYS.2019.05.26.5.137

김윤화(2022. 5). 세대별 SNS 이용 현황. https://www.kisdi.re.kr 에서 인출.

김진옥, 양혜정(2020). 청소년의 우울증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교우관계 조절 효과 검증-. *생명연구, 56*. 101-122.

박세란(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선경(2015). 부모의 형제비교행위가 정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 완벽주의와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65-683.

서경현, 조성현(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신민주(2017).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윤경(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 상담 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승희(202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업스트레스, 우울·불안, 인터넷 의존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3*(7), 157-176.

이장근, 임한, 유가우, 정용국(2021).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재한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8), 137-149. https://doi.org/10.5392/JKCA.2021

임정아(2014). **비합리적 신념, 방어기제 및 SNS 사용정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영, 김종남(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2012).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5), 1005-1015.

하문선(2020).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1*(4), 1001-1035.

https://doi.org/10.15753/aje.2020.12.21.4.1001

Andreassen, C. S.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 (2), 175-184. https://doi.org/10.1007/s40429-015-0056-9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01-230.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7.00393.x

Blachnio, A., Przepiorka, A., & Pantic, I. (2016), "Association between Facebook addict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 cross-sectional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5*, 70, 701-705. https://doi.org/10.1016/j.chb.2015.10.026

Elkind, D. (1981).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pretive essays on Jean Piaget*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1), 39-50. https://doi.org/10.1177/002224378101800104

Gladwin, T. E., Figner, B., Crone, E. A., & Wiers, R. W. (2011). Addiction, adolescence, and the integration of control and motivation.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4), 364-376. https://doi.org/10.1016/j.dcn.2011.06.008

Hawi, N. S. & Samaha, M. (2016). The relations among social media addict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5*(5), 576-586. https://doi.org/10.1177/0894439316660340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Kross, E., Verduyn, P., Demiralp, E., Park, J., Lee, D. S., Lin, N., ⋯ Ybarra, O. (2013). Facebook use predicts declin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young adults. *Plos one, 8* (8), 1-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69841

Kuss, D. J., & Griffiths, M. D. (2017).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ddiction: Ten lessons learne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3), 311. https://doi.org/10.3390/ijerph14030311

Malhotra, N. K., & Dash, S. (2011). *Marketing research: An applied orientation* (6th ed.). New Delhi: Pearson.

Van den Eijnden, R. J., Lemmens, J. S., & Valkenburg, P. M. (2016). The social media disorder sca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1*, 478-487. https://doi.org/10.1016/j.chb.2016.03.038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3), 237-244. https://doi.org/10.1089/cpb.1998.1.23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Social Media Disorder (SMD) Scale developed by van den Eijnden, Lemmens, and Valkenburg (2016) for use with Korean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479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nalyzed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original SMD Scale consisted of 27 items representing nine factors, item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ed in a final structure comprising 25 items across eight factors. Seco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es of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for adolescents provided evidence supporting its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Third, concurrent validity was examined by assessing the associations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ies and SNS use motives, covert narcissism, and lonelines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as constructs related to problematic SNS use. Finally,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adolescent, SNS addiction tendency, reliability, validity